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9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요양원에서 한 여성(왼쪽)이 3개월 만에 비닐 장치를 통해 아들(오른쪽)을 껴안고 있다.(EFE)

전 세계 코로나19 현장을 가다 국제보도사진전 11월 24일 개막

글 임동근 연합뉴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을 생생한 현장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국제보도사진전 코로나19 현장을 가다'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에서 11월 24일 막을 올렸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류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 세계 47개 뉴스통신사가 참여했으며, 세계 각지 통신사 기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보도사진 120점을 선보였다.

사진전은 1부 '끝나지 않을 시작, 코로나19', 2부 '통제인가 자유인가',

3부 '멈춰선 세계, 비대면의 일상', 4부 '연대와 협력을 향하여' 등 4부로 구성됐다.

전시된 사진에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주 시드니, 아제르바이잔 바쿠, 체코 프라하, 모로코 마라케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코로나19 대유행 속 70여개 도시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들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커다란 위기 속에서 생존과 존엄을 이어가려는 인류의 분투와 노력을 보여준다. 감염의 고통과 죽음, 위험을 무릅쓴 돌봄과 헌신, 비대면이지만 친밀함을 나누려는 따스함, 국가를 넘어선 지원과 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코로나 감염자의 격리와 지역 봉쇄, 감염자의 고통과 죽음, 비대면 생활과 마스크의 일상화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현실이 사진들 속에 담겨 있다"며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박물관 누리집(www.much.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 ☎ 02-3703-9200



4월 8일 프라하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 쓴 연인들이 키스하고 있다.(CTK)



짧은 휴식을 취하는 의료진(연합뉴스)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차량을 이용한 소독 작업(SANA)